

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7. 14.

발 의 자 : 조명희 · 강대식 · 권명호  
권영세 · 金炳旭 · 김선교  
김승수 · 김용판 · 김철민  
박대수 · 박대출 · 박덕흠  
배현진 · 서병수 · 서일준  
서정숙 · 신원식 · 엄태영  
유상범 · 윤창현 · 이양수  
이주환 · 정경희 · 황보승희  
의원(2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, 구급대, 구급차, 공항, 객차,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,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

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, 한편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,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토록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1항·제4항 및 제62조제2항).

##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가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6의2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지정·승인 등을 거쳐 관리·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
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로 한다.

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

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 행	개       정     안
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<u>경우 국가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1. ~ 6. (생략) <신설>	1. ~ 6. (현행과 같음)
	<u>6의2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지정·승인 등을 거쳐 관리·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</u>
7. (생략)	7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u>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</u>

<p>④ (생 략) 제62조(과태료) ① (생 략) 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<u>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제62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--	---